

지위·신분 알려질까 치료도 못하고...

잇단 우울증 자살 대책 마련 급하다



22일 김기현(58) 광주지방교정청장이 관사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9일에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의 20대 여교사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두 사람은 길게는 수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겹게 생활했지만 사회적 지위와 신분 탓에 치료 사실이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 걸 우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근본적 해결책인 치료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지방교정청 관사 안방에서 김 청장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비원은 김 청장의 가족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경기도에 있는 집에 갔다가 출근을 위해 지난 21일 밤 광주에 도착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딸에게 미안하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괴로웠다’라는 내용이 적힌 A4 용지가 발견됐다.

광주지방교정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지난달 19일 탈장 수술을 받은 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오랫동안 우울증 괴로웠다”

광주교정청장 극단 선택

초등학교사도 혼자 전전공공

정신질환 사회적 편견 버리고

제대로 된 치료 받게 도와야

우울증과 관련해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지난해 1월 광주지방교정청장으로 부임한 뒤 홀로 관사에서 생활해 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께는 광주시 북구 한 주택 2층에서 이 집에 사는 A(여·25)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이모(64)가 발견해 광주북부경찰에 신고했다.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봄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아버지는 7년 전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 A씨도 5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지난해 겨울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며칠 전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지병이 악화됐다”며 “3년째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울증 치료 병력이 학교 측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사실상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살률이 11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사회적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정신과 치료나 진료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한국 직장인에서 우울증의 인식과 태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우울증 진단율은 7.4%에 그쳤지만 영국은 26%, 유럽 평균은 20%에 달했다. 유병률이 크게 낮다기보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편견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정남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정신질환을 피로나 과로와 같은 육체적 고통과 같은 시각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선진국은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쉽게 가서 상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가족이 나서서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사회적으로도 우울증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떻게 차량 훼손 않고 외제차만 골라 털었나 물었더니

“사이드미러 펴져 있으면 문 잠금 설정 안된 차죠”

차량털이 10대 3명 검거

“어떻게 잠금장치가 풀린 외제차만 골라 물건을 훔쳤냐구요, 사이드 미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난 6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MW 차량에서 1400만원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로 붙잡힌 최모(16)군의 말을 들은 경찰은 깜짝 놀랐다.

의사 이모(48)씨가 설 명절을 보내려고 자신의 BMW 승용차 서랍에 둔 거액의 돈봉지를 ‘어떻게 차량을 훼손하지도 않고 훔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최군은 “신형 외제차나 고급 국내 승용차 상당수는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으면 주인이 깜빡하고 문 잠금을 설정하지 않고 차를 두고 간 경우”라고 태연히 답했다. 최군은 친구 2명과 이런 점을 악용

해 의사 이씨의 BMW 뿐만 아니라 지난달 중순부터 잠금 장치가 설정되지 않은 벤츠 등 총 3대의 외제차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일당을 붙잡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래도 금연 안할 건가요”

광주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22일 광주시 서구 U-square 유스퀘어 문화관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친경자 화백 차녀 친자확인 소송... “미인도’ 위작 밝힐 것”

국립현대미술관 상대

손배소·명예훼손 고소 계획

지난해 별세한 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미술교수 교수가 친 화백의 법적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중우씨의 아버지가 지난 18일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씨를 만나 정희씨와 중우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씨는 당시 법적인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쪽

의 호적에 올랐고 어머니도 김씨의 부인으로 등록됐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친 화백의 ‘미인도’ 위작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려 하는데 법적인 친자관계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 친자확인 소송을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미인도’ 위작을 내세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저작권침해 혐의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김 교수 남매를 친 화백이 낳았음이 그의 여러 저서와 사진 등 자료로 입증되므로 친자 확인 소송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형뉴스

친자확인 소송이 유산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상속 관련 분쟁이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친경자의 작품에 작가가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해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연도부터 소장경위 등을 추적해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친 화백이 별세한 뒤 지난해 12월 김 교수는 남편인 문병강 조지타운대 미술교수 교수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연형뉴스

호남고속도로 멧돼지와 충돌 ‘아찔’

승용차 운전자 큰 부상 없어

광주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승용차와 충돌했다.

지난 21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7.2km 지점(용봉IC 부근)에서 멧돼지 두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어 이 중 한 마리가 김모(56)씨가 몰던 카이런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김씨의 차량이 멈추면서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가 카이런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과 충돌한 80kg 상당의 멧돼지 한 마리가 죽고(사진), 다른 한 마리는 달아났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연녀 기피에 차량 털 유부남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고급 외제승용차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40대 유부남이 경찰서 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오모(43)씨는 지난 5일 밤 10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장모(여·32)씨의 차량에서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훔친 혐의.

○...오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장씨가 최근 들어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장씨가 골프채를 찾기 위해 연락할 줄 알았고, 블랙박스는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사무실 전용
- 20층 중 20층
- 132평, 76평, 38평
- 대형주차장 완비
- 전망최고, 관리비 저렴
- 매매-평당 3백만원

공동중개환영 H. 010-3605-5000